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고양이 에티켓



## 길고양이란?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를 지칭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따뜻한 시각으로 보아주세요.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길고양이는 도심 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쥐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길고양이와 시민 모두가 공존하기 위하여 길고양이를 도시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아량이 필요합니다.

## 길고양이가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돌볼 때도 이웃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이웃의 입장도 헤아려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소통과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먹이는 적정량만, 밥그릇과 밥자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X)



- 주변에 길고양이 돌보미가 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 주변 돌보미와 소통해 더 안전한 돌봄 활동을 해주세요.

### 돌보는 길고양이는 반드시 중성화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주세요! (X)



-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영역을 유지해 다른 고양이 유입을 막아 갈등과 소음을 줄여요.
- 왼쪽 귀 끝이 약 1cm 잘려 있어 구분할 수 있으며, 발정 울음이나 출산이 없어요

### 길고양이를 억지로 만지거나, 새끼 고양이를 함부로 구조해서는 안돼요! (X)



- 길고양이는 먼저 위협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 어미 고양이는 먹이 활동 중일 수 있으며, 낯선 냄새가 묻으면 새끼를 돌보지 않을 수 있어요.

### 겨울철, 시동을 걸기 전 자동차 엔진룸에서 잠자고 있을지 모를 길고양이를 깨워 주세요! (X)



#### 겨울철 길고양이 엔진룸 사고 예방법

- ① 겨울철에는 시동 전 엔진룸을 두드리고 차 문을 세게 닫아요.
- ② 경적을 울린 뒤 시동을 켜요.